

아동의 사회적 관계 및 심리적 특성과 문제 행동의 관계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problems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 연구소 최 유 정
사회학과 조교수 최 셋 별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Ewha Womans Univ.

Research Associate : Choi, Yu Jung

Depart. of Sociology, Ewha Womans Univ.

Assistant Professor : Choi, SetByol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ir behavior problems. Behavior problems comprise violations of norms, bullying, and deviant behavior in the cyberspace. A data set of 2949 Korean children in their 4th grade is analyzed to yield three main results.

First, variables such as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 aggressiveness, stress of appearance complex, gender, and depress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violations of norms. Children who have more delinquent friends, higher level of aggressiveness, stress of appearance complex, or depression report more violations of norms.

Second, delinquent friends, stress of peer relationship, aggressiveness, stress of appearance complex, gender, parents' violent attitudes toward children, and negative self-image are turned out to be important variables predicting bullying. Children with more delinquent friends, higher level of stress, higher level of aggressiveness, or lower self-image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bullying. Children who perceive their parents to be violent show more bullying experience.

Third, each of aggressiveness, delinquent friends, stress of appearance complex, gender,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family income has significant effect on deviant behavior in cyberspace. Children with higher level of aggressiveness, more delinquent friends, stress of appearance complex, or negative impression of teacher are more

likely to deviate in cyberspace. Children from higher income families report more deviant behavior in cyberspace. Boys show more experiences in every category of behavior problems than girls.

주제어(Key Words): 문제 행동(behavior problem),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심리적 특성(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또래 괴롭힘(bullying), 비행(deviation), 인터넷(internet).

I. 서론

1. 아동의 문제 행동

아동은 여러 성숙단계를 거쳐 성장, 발달하는 존재로서 매 단계에 따라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스스로를 계발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부적응은 아동의 균형있는 성숙을 저해하고 성인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문제 행동'으로 명명되어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저연령층에까지 확산된 학업 스트레스나 급격한 사회 변화, 다양한 유해 환경과 상업적 자극의 증가 등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잠재적 불안 요소들이 견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적응의 요구와 혼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양적으로 증가했음은 물론, 그 질적인 성격 또한 과격화, 집단화, 중산층화,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보고들은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확인케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문제 행동이 시작되는 시기 또한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은 아직 미완결의 상태에 있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예방과 조기 교정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다루어온 기존의 학문적 접근들은 최근까지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과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기가 지닌 전환기로서의 특수성이나, 아동의 경우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질 때 심각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아동보다는 주로 청소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또한 아동기 문제 행동의 표현과 증상이 실제로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않고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아 문제성의 발견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조기에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양형아, 박영애, 2004). 그러나 이렇게 배태된 아동의 문제 행동은 즉각적으로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성인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인자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벼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아동 중기 이후는 청소년기의 혼란을 효율적으로 극복

하고 다양한 발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준비기간으로서 이 시기에 축적된 문제가 청소년기를 거치며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아동기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아동의 문제 행동은 가족이나 학교 기타 사회생활에서 행해지는 도덕적, 교육적 사회 부적응 같이 비교적 가벼운 문제 행동에서부터 폭력, 절도 등의 심각한 일탈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김성희, 2000), 이는 이 개념이 주로 도덕적인 윤리나 교육기관의 규칙, 법률 등의 광범위한 기준들에 대한 '위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같은 내용들이 문제 행동을 구성하는 주요한 차원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회 변화와 더불어 아동이 영위하는 삶의 전반적 맥락 또한 변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자신의 삶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문제 행동 또한 그들의 삶의 변화된 차원을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을 통해 표출되는 문제적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규범 위반적 차원 외에, 최근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또래 괴롭힘"과 아동의 삶에서 이미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은 "인터넷" 상에서의 비행을 또 다른 하위 영역들로 범으로써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학문적으로도 관심을 모아 온 또래 괴롭힘 현상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부적응 행위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신재은, 2000; 이숙, 이춘아, 1998; Berndt & Ladd, 1989; Bukowski, Sippola & Boivin, 1995), 사이버 공간 역시 최근 아동의 삶에서 차지하는 영향과 비중을 비해¹⁾ 인터넷이나 게

1)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300만명을 돌파한 지 오래이고 6-1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95.5%로 전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주일 동안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10대는 38%에 달하고 있다(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임 증독 같은 극단적 양상을 제외하고는 그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김연화, 정영숙, 2005; 이상주, 배경희, 2004; 조남근, 양돈규, 2001). 그러나 학령기 이후 또래관계라는 수평적으로 확장된 관계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논리와 법칙이 지배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아동들에게 있어, 그 행동반경의 확장은 일견으로 더 광범위한 적응의 요구와 문제 행동의 반경 또한 확장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적 양상들은 모두 아동의 삶에 있어 경중을 따질 수 없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극복 과제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규범 위반 행위'와 함께 아동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 등장한 '또래 괴롭힘'과 '사이버 비행' 세 차원을 문제 행동 영역으로 구조화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 행동의 증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아동의 다양한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증재와 예방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여 왔는데, 그 논의들은 대부분 아동의 '환경'이 되는 사회적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거나 혹은 '개인 변인'에 해당하는 아동의 심리적, 내재적 특성에서 원인을 찾는 두 가지 입장에서 각기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먼저 아동이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적인 세계, 즉 관계적 차원에 주목한 연구들은 아동이 성인에 비해 가정, 학교 및 사회 등과 같은 여러 환경적인 요소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동을 둘러싼 관계들을 통해 문제 행동을 설명하려 하였다.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단연 논의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었다. 가족이 사회화 과정에서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매체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고도 연구적인 관계로서 아동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자연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졌던 바, 부모와의 친밀한 상호작용,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훈육과 감독, 정서적 지지 등의 광범위한 측면들이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 하에 집중 조명되었다(김선영, 김정희, 2004;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 2005; 양현아, 박영애, 2004; 이승희, 김광웅, 2004; Olweus, 1992).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또한 같은 맥락에서 활발히 논의된 주제들이다(김인숙, 이경님, 2004). 특히 학령기 이후 아동의 인간관계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점차 가족 외부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전

개된다는 면에서, 친구와 선생님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주요한 외부 환경이 된다. 이 중 교우관계의 경우 친밀하고 지지적인 교우관계가 사회 심리적 발달과 문제 행동 억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차원(Sullivan, 1953), 교우관계에서의 부적응이 약물중독, 비행, 반사회적 행동, 반항심 등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었다(Berndt & Ladd, 1989). 교사와의 상호 작용 역시 아동에게 애착이나 유대감, 정서적, 물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원천이자 학생의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 및 폭력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이상균, 1999; Cohen & Wills, 1985).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관계들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인 변수로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입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론적 접근들은 이제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 환경 혹은 학교 환경 같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이 두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Furman & Buhrmester, 1985; Bukowski et al., 1995), 가족체계와 또래체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어느 한쪽 관계가 잘 기능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관계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총체적 시각으로 그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계적 논의들과 별개로 내현적, 인성적, 기질적 특성과 같은 아동의 내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들 또한 하나의 독자적인 설명틀을 구축해왔다. 아동의 인성적 특성은 이후에 대두되는 청소년기, 성인기의 사회 병리적 현상 등을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아동의 긍정적 자아 적립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적응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공격성(Finnegan, 1995;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자아 존중감(Kaplan, 1980; Sullivan, 1953; Rosenberg & Rosenberg, 1978), 스트레스(박진아, 정문자, 2001, 한미현, 1996; 현은강, 이현정, 1999; Cohen & Wills, 1985), 자기통제력(민수홍, 1996; 김신희, 2000), 우울성향(심희옥, 1997; 양돈규, 1997) 등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모아왔다.

이상에서 우리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 '심리 특성', '문제 행동'이라는 세 개의 큰 축 중 연구자의 관심사와 이론적 지향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된 두 축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몇몇 변수들을 위시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는 논의들이 아동의 문제 행동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사회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이 개인차를 무시하고 외부적인 관계가 아동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결정론적인 논리로 흐를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면, 심리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반대로 환경적 요소나 관계적 요소를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였고, 두 경우 모두 각 변수의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 쪽을 간과한 채 하나의 요인만으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개인 및 환경 요인 모두에 관심을 두는 발달적 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에 근거하여(Lerner, 1986) 기존에 다루어졌던 다양한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특성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려 한다. 이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 자신과 환경을 포함한 복합적인 틀 속에서, 즉 가족 환경과 가족 외적 환경은 물론 타고난 기질과 같은 아동의 내현적 특성간의 복합적 상호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결과라는 점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특성 각각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이 두 요인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각 요인의 영향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상호적인 복합성을 드러내는데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간접적 이거나 두 요인 중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연구 주제를 3가지로 설정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아동의 문제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심리적 특성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구학적 변인 및 가족의 형태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특성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4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선정된 2949명의 초등학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2. 주요변수의 측정: 측정도구

연구 변수들은 청소년 개발원에서 측정한 주요 개념들에

사용된 척도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재명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통계 검증 결과 척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불가피하게 설문문항을 선택적으로 추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 사회적 관계

(1) 부모자녀 관계

먼저 부모자녀관계 변인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척도로 구성된 12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어 각각의 요인을 '부모와의 상호작용 친밀성', '부모의 감독', '부모의 폭력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친밀성'은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유대감과 친밀감, 긍정적 의사소통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신뢰도 검증 결과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0.768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은 가정 밖에서의 자녀의 생활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0.797이다. '부모의 폭력적 태도'는 부모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2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이 척도의 신뢰도는 0.667이었다. 부모의 폭력적 태도는 요인 분석 결과 나타난 이 변수의 통계적인 유의미성뿐 아니라 부모의 지나치게 처벌적이거나 감정적인 양육 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이나 폭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김선영, 김정희, 2004; 도현심 외 3인, 2005)의 결과에 근거하여 부모 자녀관계의 한 측면을 구성하는 변수로 포함되었음을 밝혀둔다.

(2) 교우관계

① 교우관계의 원만성: 아동의 교우관계는 아동 자신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한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성에 있어 보다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아동의 직관적인 평가를 통해 교우관계 원만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② 비행 아동과의 교류: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규범 위반 행위, 또래 괴롭힘, 사이버상의 비행에 대하여 친한 친구들 중 이런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총 16 문항을 사용하여 각각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수치화했다.

(3) 선생님과의 관계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에 사용된 선생님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들이 통계적 검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지 않고 선생님에 대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및 만족도 역시 이를 직접적으로 묻는 한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선생님을 자신의 행동에 있어 준거이자 역할 모델로 삼는 정도를 묻는 문항을 통해 선생님과 관계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나. 심리적 특성

심리적 특성의 경우 설문에 포함된 아동의 인성적, 정서적 상태를 묻는 문항들을 요인분석 하여 9개의 요인을 추출해낸 후 이것을 다시 그 내용적 특성과 패널 조사에 사용된 기존 척도에 준거로 삼아 분석적 수준에서 5개 요인으로 재범주화했다.

(1) 공격 성향

공격 성향은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외현화 유형에 한정되었으므로, 행동 자체가 아니라 내재된 성향이나 심리 특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공격성이 외부로 나타난 행동 뿐 아니라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을 참지 못하는 등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정서상태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Orpinas & Frankowski, 2001). 7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신뢰도는 .781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성격 또는 특질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자기 확신 자아', '부정적인 자아상', '일탈적 자아'의 세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자기 확신 자아'는 자기 규제를 통해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자아상'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이거나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일탈적 자아'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낙인에 대한 수용을 뜻한다. 이들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문제 행동을 억제한다는 붕쇄이론(Reckless, 1956)과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낙인이 문제 행동을 야기한다는 비행하위문화 이론(Cohen, 1955; Kaplan, 1980) 및 낙인이론(Lemert, 1951)을 각기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요인들은 순서대로 7문항, 3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Cronbach's α 계수는 .801, .803, .726이다.

(3) 스트레스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묻는 총 16개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변인들이 통계적인 차원에서 총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에 따라 각각을 '부모·학업 영역',

'교우관계 영역', '외모·물질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영역 별로 보면 '부모·학업 스트레스' 척도의 경우 총 7문항으로 신뢰도 계수가 0.871 수준이었고,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3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0.801, '외모·물질 스트레스'는 6문항으로 0.799의 신뢰도 수치를 나타냈다.

(4) 자기 통제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자제력, 하던 행동을 억제, 중단하거나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격렬한 분노를 참는 등 정서의 강도를 통제하는 정서 억제능력을 묻는 내용들로 자기 통제 척도가 구성되었으며 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는 .630이다.

(5) 우울감

불안, 걱정,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감정적 혼란 등에 대한 6문항으로 구성된 우울감 척도의 경우 .789의 Cronbach's α 값을 보였다.

다. 문제 행동

문제 행동은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거나 인정되는 행동으로부터 이탈되거나 사회의 주류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 특히 개인이나 집단에게 실질적 또는 잠정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해를 주는 행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었으며 그 범주는 패널 조사를 근간으로 규범 위반, 또래 괴롭힘, 사이버 비행으로 구조화됐다.

(1) 규범 위반 행위

도덕적 규범이나 관습적 기준 및 교육기관의 규칙,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지위 비행'과 돈이나 물건 훔치기, 절도 등의 '재산 비행', 폭행, 패싸움, 협박 등의 '폭력 비행'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총 16문항에 대한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항목수를 합산하여 점수화하였다.

(2) 또래 괴롭힘

또래 괴롭힘은 "집단 따돌림을 포함하여 또래에게 부정적인 행위를 가하고 불편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었다(Olweus, 1992). 다른 친구를 위협하거나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혹은 그러겠다고 협박하는 '직접적 유형'과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간접적 유형'이 모두 고려되었으며 총 5가지 내용에 대한 가해자적 경험과 피해자적 경험을 각각 묻고 해당 항목수를 계산하여 그 수치로 아동의 또래 괴롭힘 경험을 평가하였다.

(3) 사이버 비행

익명성과 관계의 간접성, 제재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무책임한 정보를 유포한다던가, 자신의 존재를 거짓으로 위장한다던가, 감정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을 사용하는 등 인터넷을 매개로 행해지는 문제 행위들을 사이버 비행으로 규정하고 총 6개 문항들에 대한 경험을 합산한 수치로 그 정도를 측정했다.

라. 기타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가족의 형태적·구조적 변인

이외에 성별 및 가구 소득, 부모의 학력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 사용되었고, 가족관계의 질적 측면 뿐 아니라 아동이 처해 있는 가족의 형태적·구조적 특성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 동거 여부, 어머니의 취업, 형제자매 유무, 조부모 및 기타 친족 동거 여부가 측정됐다. 가족의 형태적·구조적 특성은 외형적으로 확인되는 형식적 성격에 따른 가족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고려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함이다.

3. 자료 처리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요

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값을 산출했으며, 각 변인들간의 관계와 영향력은 관련 변인들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변수들간의 단순상관관계

〈표 1〉은 각 변인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종속 변인 중 사이버 비행이 '교우관계' 및 '자기 자신자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만 제외하면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사회적 관계 변인들과 심리적 특성 변인들이 모두 아동의 문제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친밀성', '부모의 감독', '교우관계 원만성', '선생님과의 관계'는 "아동의 문제 행동"과 부적으로, '부모의 폭력적 태도', '비행 아동과의 교류'는 "아동의 문제 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심리적 특성의 경우 '공격성', '부정적 자아상', '일탈적 자아', '스트레스', '우울감'은 문제 행동과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자기 자신자아', '자기 통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주요 변인들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규범 위반 행위	-																
2. 또래 괴롭힘	.47***	-															
3. 사이버 비행	.34***	.31***	-														
4. 부모와의 상호작용	-.13***	-.11***	-.08***	-													
5. 부모의 감독	-.12***	-.09***	-.08***	.50***	-												
6. 부모의 폭력적 태도	-.20***	.23***	.11***	-.28***	-.18***	-											
7. 교우관계	-.08***	-.10***	-.02	.25***	.18***	-.16***	-										
8. 비행 아동과의 교류	.33***	.36***	.20***	-.02***	-.05*	.18***	.01	-									
9. 선생님과의 관계	-.11***	-.08***	-.11***	.17***	.17***	-.08***	.05**	-.06**	-								
10. 공격 성향	-.28***	.25***	.25***	-.14***	-.12***	.22***	-.06**	.18***	-.10***	-							
11. 자기 자신자아	-.09***	-.07***	-.36	.36***	.27***	-.10***	.25***	.04*	.12***	-.09***	-						
12. 부정적인 자아상	.21***	.23***	.15***	-.24***	-.19***	.26***	-.18***	.14***	-.07***	.39***	-.27***	-					
13. 일탈적 자아	.19***	.18***	.12***	-.20***	-.06***	.26***	-.17***	.14***	-.07***	.32***	-.20***	.50***	-				
14. 부모학업 스트레스	.23***	.22***	.20***	-.29***	-.19***	.33***	-.16***	.16***	-.07***	.38***	-.14***	.42***	.30***	-			
15. 교우관계 스트레스	.24***	.31***	.16***	-.20***	-.14***	.30***	-.26***	.19***	-.03	.34***	-.12***	.40***	.32***	.55***	-		
16. 외모물질 스트레스	.27***	.27***	.21***	-.21***	-.15***	.26***	-.15***	.19***	-.03	.34***	-.13***	.37***	.30***	.58***	.56***	-	
17. 자기 통제	-.08***	-.05**	-.04*	.28***	.22***	-.15***	.11***	-.02	.11***	.02	.25***	-.08***	-.11***	-.05***	.04	.30	-
18. 우울감	.22***	.22***	.14***	-.19***	-.14***	.23***	-.22***	.13***	-.03	.39***	-.15***	.50***	.35***	.45***	.46***	.40***	.02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문제 행동

변인		아동의 문제 행동					
		규범 위반 행위		도래 괴롭힘		사이버 비행	
아동의 사회적 관계		B	β	B	β	B	β
부모자녀관계	부모와의 상호작용 친밀성	-.02	-.06**	-.01	-.03	-.01	-.03
	부모의 감독	-.01	-.04*	-.01	.02	-.01	-.04
	부모의 폭력적 태도	.08	.11***	.11	.15***	.03	.06**
교우관계	교우관계 원만성	-.04	.02*	-.07	-.07***	.00	.00
	비행 아동과의 교류	-.16	.31***	.17	.33***	.06	.19***
선생님과의 관계		-.05	-.06**	-.04	-.04*	-.04	-.08***
R ²		.15		.17		.06	
수정된 R ²		.15		.16		.06	
F-value		80.70***		92.50***		28.74***	

* $p < .05$ ** $p < .01$ *** $p < .001$

2.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문제 행동

먼저 다른 변수들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가 문제 행동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세 가지 문제 행동 영역 각각에 대해 부모 자녀 관계 및 교우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변인들을 동시에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규범 위반 행위”에 있어서는 고려된 모든 사회적 관계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폭력적 태도($\beta = -.11$)’와 ‘비행 아동과의 교류($\beta = .31$)’는 $p < .001$ 수준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친밀성($\beta = -.06$)’과 ‘선생님과의 관계($\beta = -.06$)’는 $p < .01$ 수준에서, 그리고 ‘부모의 감독($\beta = -.04$)’과 ‘교우관계 원만성($\beta = .02$)’은 $p < .05$ 수준에서 아동의 규범 위반에 영향을 주었다. 이 중 ‘비행 아동과의 교류’의 영향력은 매우 독보적인 수준이다. ‘부모의 폭력적 태도’는 그 다음으로 아동의 규범 위반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 관계적 변인들의 설명력은 15%였다.

“도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전체 설명력이 17%로 조금 더 높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부모의 폭력적 태도($\beta = .15$)’만이 $p < .001$ 수준에서 도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쳤고, ‘교우관계 원만성($\beta = -.07$)’과 ‘비행 아동과의 교류($\beta = .33$)’ 역시 $p < .001$ 수준에서, ‘선생님과의 관계($\beta = -.04$)’는 $p < .05$ 수준에서 영향을 주었다. 앞서 살펴본 규범 위반 행위의 경우에서처럼 도래 괴롭힘에 대해서도 ‘비행 아동과의 교류’는 사회적 관계 중 가장 예측력이 높고 ‘부모의 폭력적 태도’가 그 다음이다.

“사이버 비행”의 경우에는 ‘비행 아동과의 교류’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p < .001$ 수준에서, ‘부모의 폭력적 태도’가

$p < .01$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변인들이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비행 아동과의 교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beta = .19$). 특기할만한 점은 “사이버 비행”의 경우 ‘선생님과의 관계($\beta = -.08$)’가 통계적 유의미도의 수준이나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여타의 문제 행동 영역들에서 모두 2순위를 차지했던 ‘부모의 폭력적 태도($\beta = .06$)’보다 더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사이버 비행”에 대한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6%이다.

사회적 관계 변인만을 고려했을 경우 아동의 문제 행동의 세 영역 모두에서 ‘비행 아동과의 교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비행 아동과의 교류’는 모든 문제 행동유형과 관련하여 $p < .001$ 수준에서 가장 높은 베타 값을 보여, 문제 행동과의 강한 정적 인과관계를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친밀성’과 ‘부모의 감독’이 “규범 위반 행동”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준 반면 ‘부모의 폭력적 태도’의 경우 세 영역에 걸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선생님과의 관계’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에 있어 편차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세 영역 모두에 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교우관계 원만성’은 “규범 위반 행위”와 “도래 괴롭힘”에 대해서만 예측력이 있었다.

3.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 행동

아동의 심리적 특성만을 고려했을 때의 문제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세 가지 문제 행동을 종속변수로, 공격 성향, 자아존중감 변인, 스트레스 변인, 자기 통제 능력, 우울감을 모두 독립변수로 회귀식에 포함시켜 그 인과성을 검증하였다. 아래의 〈표 3〉은 각각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 행동

변인		아동의 문제 행동					
		규범 위반 행위		도래 괴롭힘		사이버 비행	
아동의 심리적 특성		B	β	B	β	B	β
공격 성향		.04	.17***	.03	.12***	.03	.19***
자아존중감	자기 확산자아	-3.55E-05	.00	.00	.01	.01	.02
	부정적인 자아상	.01	.02	.02	.05*	.00	.02
	일탈적 자아	.03	.04	.01	.01	.00	.01
스트레스	부모·학업 스트레스	.01	.04	-.00	-.01	.01	.07**
	교우관계 스트레스	.02	.04	.08	.18***	-.01	-.02
	외모·물질 스트레스	.03	.13***	.03	.10***	.02	.11***
자기 통제		-.03	-.08***	-.02	-.05*	-.01	-.04*
우울감		.01	.04	.01	.03	-.00	-.01
R ²		.13		.13		.09	
수정된 R ²		.13		.13		.08	
F-value		45.18***		45.81***		28.46***	

* $p < .05$ ** $p < .01$ *** $p < .001$

“규범 위반”의 경우 아동의 심리적 변인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13%였으며, ‘공격 성향’, ‘외모·물질 스트레스’, ‘자기 통제’ 세 변인이 아동의 규범 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p < .001$). 이 중 ‘공격 성향’과 ‘외모·물질 스트레스’는 종속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자기 통제’는 부적적인 영향을 주었다. 변수별 영향력의 정도는 ‘공격 성향($\beta = .17$)’, ‘외모·물질 스트레스($\beta = .13$)’, ‘자기 통제($\beta = -.08$)’ 순서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도래 괴롭힘”에 있어서는 ‘공격 성향’, ‘교우관계 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가 $p < .001$ 수준에서, ‘부정적인 자아상’과 ‘자기 통제’가 $p < .05$ 수준에서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교우관계 스트레스($\beta = .18$)’와 ‘공격성($\beta = .12$)’, ‘외모·물질 스트레스($\beta = .10$)’, ‘부정적인 자아상($\beta = .05$)’은 순서대로 도래 괴롭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자아통제($\beta = -.05$)’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부정적인 자아상’과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것은 다른 영역들과 차별적이다. 여기서 “도래 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심리적 특성의 설명력은 13%로 확인되었다.

“사이버 비행”을 설명하는 아동의 심리적 변인으로는 ‘공격 성향’, ‘외모·물질 스트레스’, ‘부모·학업 스트레스’, ‘자기 통제’가 유의하였다. 이 중 ‘공격 성향($\beta = .19$)’, ‘외모·물질 스트레스($\beta = .11$)’는 다른 영역들에서와 유사하게 아동의 문제 행동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심리 변인이었고($p < .001$ 수준). ‘부모·학업 스트레스($\beta = .07$, $p < .01$)’와 ‘자기 통제($\beta = -.04$, $p < .05$)’ 역시 사이버 비행에 각각 정적, 부적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9%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심리적 특성만을 독립 변수로 고려할 때 ‘공격 성향’과 ‘외모·물질 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 행동 영역 모두에 걸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영향력의 정도 면에서도 “규범 위반”과 “사이버 비행”에 있어서는 1, 2위를, “도래 괴롭힘”의 경우에는 2, 3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도래 괴롭힘”과 “사이버 비행”에 대한 설명에서 유의미도의 수준은 다소 떨어지지만 ‘자기 통제’ 역시 세 영역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 “도래 괴롭힘”에는 ‘교우관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자아상’이, “사이버 비행”에는 ‘부모·학업 스트레스’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문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심리적 변인들에 있어 어느 정도 공통된 지반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

4.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특성의 상대적 영향력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특성이 과연 여타의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도 영향이 있는지, 두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1단계에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2단계에 가족의 형태 변인을, 3단계에 사회적 관계를, 4단계에 심리 특성을 투입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으나, 종속변수의 세 영역 모두에서 가족 형태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설명력의 증가분이 미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단계를 3단계로 축약하여 제시하였다(〈표 4〉 참조).

<표 4>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아동의 문제 행동								
	규범 위반 행위(β)			도래 괴롭힘(β)			사이버 비행(β)		
	1 단계	2 단계	3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통제 변인									
성별	.13***	.05*	.07**	.13***	.06**	.08***	.12***	.05*	.06**
가구 월평균 소득	.01	.01	.02	-.00	-.00	.00	.04*	.04	.04*
아버지 학력	.01	.03	.02	-.04	-.02	-.03	.00	.02	.00
어머니 학력	-.05*	-.04	-.03	-.00	.01	.02	-.02	-.01	-.01
부모 동거 여부	-.02	-.02	-.02	-.03	-.03	-.03	.01	.01	.01
어머니 취업 여부	-.03	-.02	-.01	.01	.01	.02	-.00	.00	.00
형제 자매 유무	.03	.03	.02	.01	.02	.01	.00	-.00	-.01
조부모 · 친척 동거 여부	.03	.02	.02	-.03	-.03	-.03	-.00	-.01	-.01
아동의 사회적 관계									
부모와의 상호작용 친밀성		-.06**	-.01		-.02	.02		-.03	.01
부모의 감독		-.03	-.01		-.01	.01		-.04	-.02
부모의 폭력적 태도		.09***	.02		.13***	.08***		.06**	-.00
교우관계 원만성		-.05**	-.02		-.08***	-.03		.01	.02
비행 아동과의 교류		.31***	.26***		.33***	.27***		.18***	.13***
선생님과의 관계		-.05*	-.04		-.03	-.02		-.06**	-.05**
아동의 심리적 특성									
공격 성향			.14***			.09***			.16***
자기 확신 자아			-.03			-.04			-.00
부정적인 자아상			.02			.05*			.01
일탈적 자아			.02			-.03			-.01
부모 · 학업 스트레스			.02			-.05*			.05
교우관계 스트레스			.01			.14***			-.02
외모 · 물질 스트레스			.11***			.09***			.11***
자기 통제			-.03			-.02			-.02
우울감			.05*			.03			.01
R ²	.02	.15	.21	.02	.17	.23	.02	.06	.12
수정된 R ²	.02	.15	.20	.02	.16	.22	.01	.06	.11
F-value	6.89***	31.44***	28.52***	6.60***	35.91***	31.24***	4.68***	11.89***	14.04***

* $p < .05$ ** $p < .01$ *** $p < .001$

가. 규범 위반 행위

먼저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의 형태적 특성이 아동의 문제 행동 중 “규범 위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beta=.13, p<.001$)’ 과 ‘어머니의 학력($\beta=-.05, p<.05$)’ 의 영향력만이 유의미했다. 2단계로 아동의 사회적 관계 변인들을 투입하자, 회귀식의 설명력은 2%에서 15%로 증가했고, 성별($\beta=.05, p<.05$)의 영향은 유지되었으나 어머니의 학력은 더 이상 아동의 규범 위반 행위를 설명하지 못했다. 새로이 투입된 사회적 관계에서는 ‘부모의 상호작용 친밀성($\beta=.06, p<.01$)’, ‘부모의 폭력적 태도($\beta=.09, p<.001$)’, ‘교우관계의 원만성($\beta=-.05, p<.01$)’, ‘비행 아동과의 교류($\beta=.31, p<.001$)’, ‘선생님과의 관계($\beta=-.05, p<.05$)’ 가 유의미한 변수로 부각되었다. 이를 앞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만을 독립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비행 아동과의 교류’ 및 ‘부모의 폭력적 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양상은 유사하지만 ‘부모의 감독’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는 차이를 보인다. 즉,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가족의 형식 특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모의 감독’은 더 이상 아동의 규범 위반에 대한 예측변수가 아니었다.

다음 단계로 아동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을 회귀식에 추가한 결과 2단계에서 ‘부모의 감독’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했던 사회적 관계 변수들의 영향력이 대거 사라지고 ‘비행 아동과의 교류’만이 남았다($p<.001$). 심리 변인으로는 ‘공격 성향($p<.001$)’, ‘외모 · 물질 스트레스($p<.001$)’, ‘우울감($p<.05$)’이 아동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통계적인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적 변인만을 독립변수로 삼았던 중다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심리 변인 중에서는 ‘자기 통제’의 유의미성이 사라졌고, ‘우울감’의 경우 $p<.05$ 수준 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관계와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가시화된 것이 특징적이다. ‘성별’의 영향력은 $p<.01$ 수준에서 유지됐다.

아동의 ‘규범 위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비행 아동과의 교류($\beta=.26$)’였고 그 다음이 ‘공격 성향($\beta=.14$)’이다. 그 뒤를 이어 ‘외모·물질 스트레스($\beta=.11$)’, ‘성별($\beta=.07$)’, ‘우울감($\beta=.05$)’이 순서대로 종속변수에 대해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비행 아동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공격 성향이 강할수록, 외모·물질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남아가 여아보다, 우울감이 높을수록 규범 위반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21%이다.

나. 또래 괴롭힘

1단계에서 “또래 괴롭힘”을 종속 변수로,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가족의 구조적·형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삼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또래 괴롭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beta=.13, p<.001$)’이 유일했으며 이때 회귀식의 설명력은 2%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아동의 사회적 관계 변인들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들의 설명력은 17%로 증가했다.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로는 ‘부모의 폭력적 태도($\beta=.13, p<.001$)’, ‘교우관계 원만성($\beta=-.08, p<.001$)’, ‘비행 아동과의 교류($\beta=.33, p<.001$)’가 유의미했다. ‘성별($\beta=.06, p<.01$)’도 여전히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앞에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했던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와 비교할 때,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의 구조적·형태적 변인을 통제한 결과 ‘선생님과 관계’는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3단계에 심리적 변인들을 추가로 분석에 포함시킨 결과 ‘성별($\beta=.08, p<.001$)’의 영향이 재확인되었고, 사회적 관계 중에서는 ‘부모의 폭력적 태도’와 ‘비행 아동과의 교류’가 ($p<.001$), 심리 변인으로는 ‘공격 성향($p<.001$)’, ‘부정적인 자아상($p<.05$)’, ‘부모·학업 스트레스($p<.05$)’, ‘교우관계 스트레스($p<.001$)’, ‘외모·물질 스트레스($p<.001$)’가 또래 괴롭힘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2단계와 비교하면 ‘교우관계 원만성’의 영향이 사라진 것을, 심리적 변인만을 포함시켰던 중다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한다면 ‘자기 통제’의 유의미성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 특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이 두 변인이 더 이상 아동의 또래 괴롭힘을 설명하는데 유의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및 위계적 회귀분석의 2단계까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던 ‘부모·학업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유의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의미성과 베타 계수의 수준도 관련 변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이루어 그다지 신뢰할만한 결과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도출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행 아동과의 교류($\beta=.27$)’가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그 다음은 ‘교우관계 스트레스($\beta=.14$)’이다. 그 외에는 ‘공격 성향($\beta=.09$)’, ‘외모·물질 스트레스($\beta=.09$)’, ‘성별($\beta=.08$)’, ‘부정적인 자아상($\beta=.05$)’ 순이었다. 즉 비행 아동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교우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공격 성향이 강할수록, 남아들이 여아보다 더 많이, 외모나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경험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회귀식이 또래 괴롭힘을 설명해주는 정도는 23%로 2단계에 비해 6% 높아진 수치이다.

다. 사이버 비행

아동의 문제 행동 마지막 영역인 “사이버 비행”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먼저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과 가족의 형태적·구조적 변인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성별($\beta=.12, p<.001$)’과 ‘가구 월평균 소득($\beta=.04, p<.05$)’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 두 변인 중 성별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 변인들을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한 후에도 그 영향력을 유지했으나($\beta=.05, p<.05$), 가구 월평균 소득의 유의미성은 사라졌다. 새롭게 포함된 사회적 관계 변인 중에서는 ‘부모의 폭력적 태도($\beta=.06, p<.01$)’, ‘비행 아동과의 교류($\beta=.18, p<.001$)’, ‘선생님과의 관계($\beta=-.06, p<.01$)’가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사회적 관계 변인만을 독립변수로 삼아 사이버 비행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2% 수준이었던 설명력은 사회적 관계 변인의 투입과 함께 6%로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식에 심리적 변인을 투입하여 제 변인들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성별($p<.01$)’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했으며 2단계에서 사라졌던 ‘가구 월평균 소득($p<.05$)’이 다시 예측 변수로 떠올랐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비행 아동과의 교류($p<.001$)’와 ‘선생님과의 관계($p<.01$)’가 사이버 비행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남았다. ‘부모의 폭력적 태도’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함께 회귀식에 투입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유의적이지 못했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공격 성향’, ‘외모·물질 스트레스’가 $p<.001$ 수준에서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주었다. 심리적 특성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했던 중다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녔던 ‘부모·학업 스트레스’와 ‘자기 통제’는 여타의 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다. 이상의 변인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12%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사이버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공격 성향($\beta=.16$)’과 ‘비행 아동과의 교류(β

〈표 5〉 아동의 문제 행동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

아동의 문제 행동					
규범 위반 행위		또래 괴롭힘		사이버 비행	
예측 변인	β	예측 변인	β	예측 변인	β
1. 비행 아동과의 교류	.26***	1. 비행 아동과의 교류	.27***	1. 공격 성향	.16***
2. 공격 성향	.14***	2. 교우관계 스트레스	.14***	2. 비행 아동과의 교류	.13***
3. 외모·물질 스트레스	.11***	3. 공격 성향	.09***	3. 외모·물질 스트레스	.11***
4. 성별	.07**	4. 외모·물질 스트레스	.09***	4. 성별	.06***
5. 우울	.05*	5. 성별	.08***	5. 선생님과의 관계	-.05**
6. 부모의 폭력적 태도	.08***	6. 가구 월평균 소득	.04*		
		7. 부정적인 자아상	.05*		
		8. 부모·학업 스트레스	-.05*		
R ²	.21***	R ²	.23***	R ²	.12***

* $p < .05$ ** $p < .01$ *** $p < .001$

=.13), '외모·물질 스트레스($\beta=.11$)', '성별($\beta=.06$)', '선생님과의 관계($\beta=-.05$)', '가구 월평균 소득($\beta=.04$)' 순이다. 공격 성향이 높을수록, 비행 아동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외모와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남아가 여아보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쁠수록,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이버 비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문제 행동 영역별 예측변인들을 정리한 내용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발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접적인 과제와 이를 통해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를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할 보다 장기적인 과업을 동시에 안고 있는 아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 시기 아동의 문제 행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차원들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아동의 문제 행동 영역을 '규범 위반 행위', '또래 괴롭힘', '사이버 비행'의 세 범주로 나누었고, 아동의 개인적, 환경적 변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고려를 통해 이 영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규명해내고자 하였다. 조사자료로는 2949명의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패널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 위반 행위의 경우 사회적 관계 변인에서는 '비행 아동과의 교류'가, 심리적 관계 변인으로는 '공격 성향'과 '외모·물질 스트레스', '우울감'이 영향을 미쳤다. '성

별'의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비행 아동과의 교류', '공격 성향', '외모·물질 스트레스', '성별', '우울감'의 순서로 영향력이 크다. 즉, 비행 아동과의 교류가 규범 위반 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고 공격 성향이 강할수록, 외모와 경제적 수준이나 소유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수록, 남아들이 여아보다, 우울감을 많이 느낄수록 규범 위반 행위의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다.

둘째,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관계 변인은 '부모의 폭력적 태도'와 '비행 아동과의 교류'였고, 심리적 변인으로는 '공격 성향', '외모·물질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트레스', '부모·학업 스트레스' 등의 스트레스 변인과 '부정적 자아상'이 유의미했다. 여기서도 '비행 아동과의 교류'는 또래 괴롭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였다. '교우 관계 스트레스', '공격 성향', '외모·물질 스트레스', '성별', '부모의 폭력적 태도', '부정적인 자아상', '부모·학업 스트레스'가 영향력의 수준에서 그 뒤를 따랐다. 전반적으로는 비행 아동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클수록, 공격 성향이 클수록,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폭력적인 태도가 강할수록,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아동의 또래 괴롭힘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의 폭력적 태도가 또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설명하는 변수로 드러난 것이 흥미롭고, 교우관계 스트레스 및 부정적인 자아상 등 다양한 심리 변인들이 이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인 변수들이 또래 괴롭힘의 원인일 수도 있으나 또래 괴롭힘 피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는 순환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사이버 비행 영역에는 사회적 관계로는 '비행 아동과의 교류'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심리 변인으로는 '공격 성향', '외모·물질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전체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면 사이버 비행에 대한 예측력은

‘공격 성향’, ‘비행 아동과의 교류’, ‘외모·물질 스트레스’, ‘성별’, ‘선생님과의 관계’, ‘가구 월평균 소득’의 순이다. 공격 성향이 높을수록, 비행 아동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외모와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남아가 여아보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이버 비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이 중 ‘공격 성향’의 영향력이 나머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인 ‘비행 아동과의 교류’의 영향을 증가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가구 월평균 소득’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이제 사회적 관계 변인과 심리적 특성 모두를 포함하는 큰 틀 속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적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이상의 결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변인과 심리적 특성 변인 각각을 독립적으로 문제 행동에 대한 독립변수로 상정했을 때와 양 차원을 함께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바로 이 차이가 ‘개인’과 ‘환경’ 변인의 총체적인 조망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줄 뿐 아니라, 아동의 문제 행동과 각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 변인의 경우 문제 행동 영역 각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에 단독으로 투입되었을 때 ‘부모의 폭력적 태도’, ‘비행 아동과의 교류’, ‘선생님과의 관계’가 세 영역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표 2 참조). 그러나 심리적 변인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족 형태 변인을 모두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 영역에 걸쳐 영향력이 확인된 것은 ‘비행 아동과의 교류’ 뿐이었다. ‘부모의 폭력적 태도’는 또래 괴롭힘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유지했고, ‘선생님과의 관계’는 반대로 사이버 비행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변인으로 남았다. 사회적 관계 변인만이 포함된 회귀분석에서 규범 위반 행위에만 영향을 미쳤던 ‘부모와의 상호작용 친밀성’이나 ‘부모의 감독’, 또래 괴롭힘에만 영향을 주었던 ‘교우관계 원만성’은 타변수들의 영향력이 총체적으로 고려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심리적 특성 변인에 있어서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된다. 아동의 심리적 변인에 대해서만 실시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 성향’과 ‘외모·물질 스트레스’, ‘자기 통제’ 능력이 모든 아동의 문제 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 참조). 그러나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 단계에서는 ‘공격 성향’과 ‘외모·물질 스트레스’의 영향력만이 검증되었다. ‘자기 통제’는 아동의 사

회적 관계를 비롯한 타변수들이 통제되자 동시에 영향력을 잃었다. 심리 특성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했을 때 또래 괴롭힘에만 영향을 미쳤던 ‘교우관계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자아상’은 사회적 관계변인들과 함께 고려되었을 때도 그 의미를 유지했지만 ‘사이버 비행’에만 영향을 주었던 ‘부모·학업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거치며 예측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특성 변인의 총체적인 관계 속에 몇몇 변수들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뚜렷한 예측변인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목도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명확해진 문제 행동의 주요 변인들을 대상으로 그 함의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먼저 사회관계 중 ‘비행 아동과의 교류’의 강력하고도 폭넓은 영향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청소년기에 이르기 전 아동은 동성끼리 활발히 집단을 형성하면서 강한 집단의식 및 연대감을 경험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힘을 표현하고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도당시기(gang age)’에 돌입하게 된다(도현심 외 3인, 2005).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고 친구를 통해 정체성을 찾고 정서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는 이 시기에 자연스러운 발달적 특징이다. 직접적으로 친구를 행동 모델로 삼는다거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친구와 흉미나 행동, 태도에 있어서 유사해 지려는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욕구의 표현이다. 따라서 시기적 특성상 도당시기의 아동에게 문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여타의 사회적 관계나 심리 특성을 떠나 문제 행동을 습득하기에 매우 용이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생임을 생각할 때, 이들이 이미 부모자녀관계보다도 교우관계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위험요소가 더 커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행동 예방과 교정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아동의 부적절한 교우관계 이외에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부모의 태도이다. 그 대상이 또래 괴롭힘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부모의 폭력적 태도’의 영향력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부모의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태도가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같은 결과는 가족 맥락이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고 특히 부모의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양육태도나 일관적이지 못한 자녀에 대한 훈육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만들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고해온 기존의 논의들을 지지하는 것이다(Olweus, 1992; Finnegan, 1995; Manning & Taylor, 1978; Hart et al., 1998).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성이나 부모의 감독 같은 긍정적 차원들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차단효과를 갖기보다 부모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보다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사한 맥락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의미가 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급은 가정 다음으로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이고 교사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그만큼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적 관계 중 비행 아동과의 교류에 이어 선생님과의 관계가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은 학급 내에서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종전의 연구 결과(정동화, 1995; 한미현, 1996)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이 교사와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교사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이것을 다른 매개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 매진할 수 있고, 이것이 부정적이고 왜곡된 행위들로 불거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심리적 변인들에서 대표적인 예측 변수로 드러난 '공격 성향'이나 '외모·물질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하다. 공격 성향이 아동의 문제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은 기존에 많이 지적되어왔을 뿐 아니라(김선영, 김정희, 2004; Finnegan, 1995; Hart et al., 1998)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타의 심리 변인들을 압도하는 '외모·물질 스트레스'의 가시적 영향력은 다소 예상외의 발견이라 할 것이다. 부모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다른 심적 요소들보다 자신의 외모나 경제 수준, 소유물 등에 대한 상대적인 결핍감이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행동을 야기할 만큼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외모나 물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가지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동들은 그 불만족을 실생활에서 왜곡된 방법으로 분출하려 하던가, 그러한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익명적인 공간에서 현실에서 해결되지 못한 욕구와 분노를 해소하고 대안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게 되어 실제 삶과 사이버 공간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주로 학령기 아동이 학교와 또래 집단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확대된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적응 요구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다는 일반적인 논리를 펴온 선행 연구들을 생각할 때, 이 결과는 오늘날 아동의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대중 매체를 통해 확산된 미의 기준과 물질적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숭상이 이들의 삶에 얼마나 여과없이 투영되고 있는지를 절감하게 한다. 아동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은 이제 사회에게 주어질 과제이다. 더불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부분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교우관계 스트레스나 부정

적인 자아상, 우울감 등에 대해서도 아동이 왜곡된 출구를 찾게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만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아동의 교우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적 지도, 건전하고 감정적으로 절제된 부모와 교사의 역할 재고, 아동의 올바른 가치관 교육에 바탕을 둔 긍정적인 인성 배양 등 아동 '개인'과 '환경' 양 차원을 아우르는 노력은 이들의 문제 행동 예방과 교정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포괄적인 영역에 걸쳐 아동의 문제 행동과 그 원인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했던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심리 특성을 포함하는 큰 틀 안에서 문제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학문적, 실용적인 접근들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환경 변인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고, 아동의 문제 행동이 역으로 아동의 사회관계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상호적, 순환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이 다양한 변수들의 보다 총체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은 추후의 의미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성별에 따른 각 문제 행동의 정도 차이만을 드러냈을 뿐, 구체적으로 남아와 여아에 있어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성별 변수는 문제 행동의 각 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인 만큼, 이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문적으로 밝혀진 문제 행동의 원인과 해결 방안 에 기반하여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문제 행동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긍정적인 요인들을 강화하는 아동 상담 및 생활 지도, 심리 치료적 개입, 건전하고 지지적인 부모 역할 습득을 위한 부모 교육, 부모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선영, 김정희(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자기 통제력 및 자기 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상담학연구*, 4(3), 711-723.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탐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연화, 정영숙(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

- 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 경향, *대한가정학회지*, 43(10), 103-124.
- 김인숙, 이경남(2004).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지지와 행동문제. *한국가정과학회지*, 7(2), 97-113.
-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85-195.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박진아, 정문자(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07-122.
- 신재은(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 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53-165.
- 심희옥(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및 부적응. *아동학회지*, 16(1), 89-98.
- _____(1997).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양돈규(1997). 부모 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현아, 박영애(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아동의 행동 문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47-860.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주, 배경희(2004). 인터넷 과잉이용 학생과 보통이용 학생간의 자존감, 공격성, 우울 비교. *청소년학 연구*, 11(3), 299-319.
- 이숙, 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 이승희, 김광웅(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 *인간발달연구*, 11(1), 129-143.
- 정동화(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04). 2004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
- 조남근, 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4(1), 91-111.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은강, 이현정(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11), 167-178.
- Berndt, T. J., & Ladd, C. W. (Eds.) (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Bukowski, W. M., Sippola, L. K., & Boivin, M. (1995, March). Friendship protects "at risk" children from victimization by peers. In J. M. Price(Chair), *The role of friendship in children's developmental risk and resilience*. Indianapolis: IN.
- Cohen, A. (1955). *Delinquent Boys*. Glencoe. IL: The Free Press.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Finnegan, R. A. (1995, March).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Links with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Furman W., & Buhrmestre, D. (1985). Children's perception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Kaplan, H.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c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 Lerner, R. M. (1986). *Concepts and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2ed)*. NY: Random House.
- Manning, S. A., & Taylor, D. A. (1978). Effect of viewed violence and aggression: Stimulation and catharsis.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31(1), 180-188.
- Olweus, D. (1992). Peer victimization: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Rubin &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 Orpinas, P., & Frankowski, F.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 Adolescence*, 21(1), 50-67.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nsery, E.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telia Publishing.
- Reckless, W. G., Dinitz, S., & Murray, E. (1956). Self concept as an insulator against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744-746.
- Rosenberg, R., & Rosenberg, M. (1978). Self 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1.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2006년 10월 29일 접수, 2006년 12월 15일 채택)